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뉴스레터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NEWSLETTER

제 12 호
2023. 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8월 16일(수) "2023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대학생들(5개국, 78명)의 방문행사를 진행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CONTENTS

1. 2023 경남대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	1
2. 연구서 발간	2
3. 북한·통일 교과서 집필진 중간발표회	3
4. 교수 연구활동	4
5.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6
6. 도서관 소식	9
7. 연구소 동정	14
8. 예정사항	17
9. 참고자료	18

•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1. 2023 경남대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2023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대학생들의 연구소 방문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일본 대학생 35명, 중국 대학생 31명, 대만 대학생 10명, 미국 대학생 1명, 멕시코 대학생 1명 등 총 5개국 78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박재규 총장은 환영인사에서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하여 총 21개 자매 대학에서 총 7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문화와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도서관을 견학, 도서관 내 북한자료실에 비치된 특수자료와 다양한 북한 원전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은 경남대학교에서 여름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경남대 재학생들과 체험적 교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세계화를 적극 실천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2. 연구서 발간

단행본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북한연구시리즈 66)

2023. 8. 31.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글은 서론에서 북한에서 법치, 법치국가, 법의 지배 그 인접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왔는지 그간의 이론적 논의와 법건설 실천경험을 통해 살펴 보았다.

< 요약 >

대상기간의 첫 번째 단계는 즉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포괄한다. 법과 그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이 시기에도 확인된다.

두 번째 단계(1950년대 후반~1990년대)는 제약 없는 ‘법치’ 용어의 사용이 수정주의적 표현으로 폄하되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법의 적절성이 재고(再考)되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음이 선언되면서 사회주의적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법이 요구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법규 정리에 이어 대대적인 사회주의법 제정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른다. 이 기간 중 사회주의법치 국가건설 사상의 정식화(formulation)를 통해 법치 및 법치국가 용어가 - 비록 사회주의에 의해 제약된 형태이기는 하나 - 비로소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법치국가 건설사상에 기반을 두고 입법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법제정사업의 개선이 이루어져 그 결과 2012년 12월 19일 「법제정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은 2022년 9월 제7차 범무일군대회에서 제시된 ‘인민대중제일주의 법건설사상’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그와 함께 공교롭게도 법치 용어의 사용이 드문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당장 법치 용어의 전면적 퇴장을 확인하는 것은 선부른 일이 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법치를 말하고 법치국가건설을 내세우던 것이 해방 후 80여년에 이르는 북한의 역사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민주개혁’과 ‘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뒷받침

제3장 사회주의법건설의 경험과 이론(1950년대 후반-1990년대)

제4장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에서 ‘인간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으로

제5장 결론



3. 북한·통일 교과서 집필진 중간발표회

【 북한·통일 교과서 『핵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집필진 중간발표회 】

- 날짜: 2023. 8. 11.(금) 13:00~17:00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 소내: 이관세 소장, 조진구 연구실장, 이상만 기획실장, 이병철 국제협력실장, 임을출 ICNK센터장, 정재욱 교수
 - 소외: 김정 교수(북한대학원대), 이웅현 연구교수(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황지환 교수(서울시립대)
- 논의사항
 - 장별로 해당 분야 집필자가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해 발표, 집필진들과의 토론을 통해 보완 정리
 - 개별 장 구성 확정, 장간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대학교 3~4학년생 수준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 등

제 1 장 서장

제 2 장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 이론적 접근

제 3 장 북한 핵무기 개발 동인 및 과정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제 4 장 북한 핵문제와 국제레짐

제 5 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

제 6 장 북한 핵보유와 북중관계의 변화

제 7 장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변화

제 8 장 북한 핵문제와 북일관계의 변화

제 9 장 북한 핵문제와 북러관계의 변화

제10장 종장

4. 교수 연구활동

이관세 소장	
학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 ICT 담대한 협력방안 콜로키움 기조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장소: 2023. 8. 30.(수), 서강대 정하상관 - 주제: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협력(ICT 등) 방향과 과제

조진구 교수	
언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 8. 19.(토), 연합뉴스TV 출연, “[뉴스특보]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한일정상 별도 만남” 2. 2023. 8. 21.(월), 연합뉴스TV 출연, “[뉴스프라임] 일, 오염수 방류 '마지막 수순' 밝기…내일 날짜 확정할 듯” 3. 2023. 8. 22.(화), 연합뉴스TV 출연, “[1번지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결정…정부, 관리체계 가동” 4. 2023. 8. 24.(목), 연합뉴스TV 출연, “[뉴스포커스] 오늘 낮 오염수 방류 개시 예정…“협약 위반 시 국제 제소”

임을출 교수	
학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은 북한경제』(한국수출입은행 발간) 2023년 여름호 논문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북한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개발협력에의 함의 2. 2023. 8. 28.(월), IFES Brief, “북한 국경 개방 공식화, 전면 개방 이어지나?” 게재

이병철 교수	
학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 8. 23.(수), IFES Brief,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 게재

최영준 교수	
학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주최 세미나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장소: 2023. 8. 22.(화), 이북5도청 - 주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의의와 발전방안

조빙/석좌교수

안호영 교수	
학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 8. 30.(수), IFES Forum, “Why the August 18 Camp David Summit was a big deal” 게재
언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 8. 7.(월),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워싱턴 선언의 관건은 이행이다” 기고 2. 2023. 8. 15.(수), 코리아 타임스, “How to implement the Washington Declaration” 기고 3. 2023. 8. 18.(금), 연합뉴스 TV, “[뉴스프라임] 내일 캠프데이비드서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 출연 4. 2023. 8. 22.(화), The JoongAng “[시론] 캠프데이비드 합의 내용 제대로 읽어야” 기고

한용섭 교수	
학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AIST 비확산교육연구센터 주최, 핵비확산 국제 세미나 제1세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장소: 2023. 8. 1.(화), 서울엠베서더 호텔 - 주제: 세계의 비확산 동향: 문제와 대응 2. 『한국 비확산원자력 저널』, 2023년제2호(2023년 8월발간) 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 워싱턴선언의 평가

권기원 교수	
언론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 8. 3.(목), 아주경제, “[권기원 칼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자”

5.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 제8차 펠로 특강 】

- 날짜/장소: 2023. 8. 2.(수), 극동문제연구소
- 초청 강사: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 주제: 북한인권 현황과 쟁점
- 참석자
 - 주임교수: 김상범 교수
 - 펠로: 진호, 양만봉, 전령현, 다하라 료, 안드레이 꼬브시,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
- 내용
 - 북한 인권 현황,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국제 인권 규범, 제도, 사상, 행동의 성장과 변화, 향후 북한 인권 증진 방향 등 설명
 - 펠로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코로나 19 시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등에 대해 질의 및 토론

【 제9차 펠로 특강 】

- 날짜/장소: 2023. 8. 25.(금), 극동문제연구소
- 초청 강사: 엄현숙 국립 통일교육원 교수
- 주제: 북한의 아동 교육 및 아동 정책
- 참석자
 - 주임교수: 김상범 교수
 - 펠로: 다하라 료, 안드레이 꼬브시,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
- 내용
 - 미국과 소련의 아동교육 및 아동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설명, 북한의 아동교육 현황, 아동 정책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해 설명
 - 북한 아동교육 현장에서의 이데올로기 선전선동의 영향, 7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상황, 아동교육 관련 가정과 아버지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

【 제10차 펠로 특강 】

- 날짜/장소: 2023. 8. 28.(월), 극동문제연구소
- 초청 강사: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 주제: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 연계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함의
- 참석자
 - 주임교수: 김상범 교수
 - 펠로: 다하라 료, 안드레이 꼬브시,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
- 내용
 - 외교 정책의 일반적 성격, 한국과 북한의 인도-태평양 전략, 신남방 정책과의 차이점, 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관계 등 설명
 - 쿼드(QUAD)에서 인도의 역할과 쿼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국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진출 관련 북한과의 대립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

【 펠로 1차 최종 연구발표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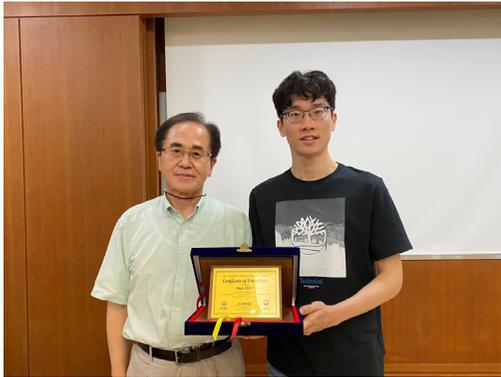
- 날짜/장소: 2023. 8. 7.(월), 극동문제연구소
- 발표자: 진호(CHEN, Hao), 양만봉(YEUNG, Man Fung)
- 주제: ① “Making the Third Korea: The Yanbian frontier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1945-1952” / 진호
② “North Korea's “Alliance Coercive Diplomacy” against China (1992-2022)” / 양만봉
- 참석자
 - 펠로: 전령현, 안드레이 꼬브시,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
 - 연구소: 이관세 소장, 이상만 주임교수, 김상범 주임교수, 조진구 교수

【 펠로 수료식 및 2차 중간 발표회 】

- 날짜/장소: 2023. 8. 18.(금), 국학원
 - 펠로들의 우리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방문한 국학원 현장에서 진행

- 2023-1차 펠로 수료식

- 진호, 양만봉 펠로의 수료식을 진행하고 수료패를 전달
- 진호와 양만봉 펠로는 특강, 워크숍,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의미 있는 중간 및 최종 연구발표회를 진행
- 수료식 후 두 펠로는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십에서 연구를 위한 최고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외 신진학자 육성과 북한·통일학 연구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감을 표명



< 진호 수료패 전달 >



< 양만봉 수료패 전달 >

- 2023-2차 펠로 중간 연구발표회

- 전령현(Lingxian QUAN) 펠로
: (주제) “김정은 시대 농업법제의 주요변화와 그 특징-식량증산 정책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다하라 료(Ryo TAHARA) 펠로
: (주제) “전두환 정부 초기 대비동맹 외교의 전개와 대북정책-남북한 국가 정통성 경제의 관점에서”

- 참석자:

- 연구소: 이관세 소장, 임을출 교수, 최영준 교수
- 펠로: 진호, 양만봉, 전령현, 다하라 료, 안드레이 꼬브시

6. 도서관 소식

【 신규 도서 】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 및 국제관계 등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도서 및 북한 자료를 지속해서 확보·제공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입수된 주요 자료를 안내한다.

■ 북한자료

자료명	출판사	출판년
로동신문	로동신문사	2022
문학신문	문학예술출판사	2022
민주조선	민조조선사	2022
통일신보	통일신보사	2022
고등교육	교육신문사	2022
과학원통보	과학기술출판사	2022
교원선전수첩	교육신문사	2022
기상과 수문	농업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경제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역사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물리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법률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생명과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수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정보과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지구환경과학 및 지질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화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22
역사과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22
민족유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22
사회과학원학보	사회과학출판사	2022
산림과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연구원 자료통보실	2022

자료명	출판사	출판년
아동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22
예술교육	2.16예술교육출판사	2022
인민교육	교육신문사	2022
정보과학과 기술	중앙과학기술통보사	2022
조선녀성	근로단체출판사	2022
조선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22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22
천리마	천리마사	2022
청년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22

■ 국내도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미중 전쟁은 시작됐다	로버트 스팔딩	케이씨팩	2023
와다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와다 하루키	청아출판사	2023
북일 교섭 30년	와다 하루키	서해문집	2023

【 추천 도서 】



제목: 『북일 교섭 30년』
저자: 와다 하루키 지음(길유행 옮김)
출간일: 2023. 8. 15.
출판사: 서해문집
쪽수: 324쪽

지난 8월 18일 미국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의 협력을 동맹에 준하는 형태로 끌어올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일의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지속과 함께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포함되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과거 정권 때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해 온 기시다 정권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은 양국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 하는 것, 즉 북일이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인 문서였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과 일본은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일본과 국교가 없는 유일한 유엔 가맹국이다.

평양선언 이후 20년, 이에 앞선 1990년 9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과 일본 사회당의 공동선언과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의 북일 관계의 최대 장애가 된 것이 일본인 납치 문제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2022년 9월에 펴낸 책이 이번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을 보지 않고는 현대 북일 관계를 논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인데, 그에 대해 와다 교수는 냉혹하다. “납치 문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수립은 없으며”

“납치 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 전원의 탈환을 요구한다”는 아베의 납치 3원칙은 북한의 현 체제와의 교섭을 단념하고 압력을 가해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와다 교수는 북한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경솔하고 무책임하며 위험한’ 행동이 북일 관계를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치와 외교에 위기를 초래했다고까지 혹평한다. 역사수정주의적 정치가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가혹한 평가는 한일관계에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평가는 독자의 몫이지만, 와다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는 소수파라는 점만은 덧붙이고 싶다.

필자가 일본에 유학하던 1993년 이후 지난 30년간 직간접적인 학은(學恩)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와다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진지함은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와다 교수가 언급한 대로 일본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길 바라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집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을 함께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 「북일 교섭 30년」 목차 >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들어가며 일본과 북일 국교 정상화

1 북일 국교 교섭의 개시와 결렬, 1990~1992

2 북일 교섭 재개 노력과 반대 세력, 1993~1997

3 북일 국교 교섭 제2라운드로, 1997~2001

4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평양선언, 2002

5 2004년 고이즈미 재방북, 2003~2005

6 아베 총리의 대북정책 선포와 시동, 2005~2007

7 아베 노선의 국책화, 2007~2012

8 아베 제2차 정권의 탄생, 2012~2015

나오며 북미 대립의 심각화와 그 이후, 2016~2022

주

북일 관계 · 국교 교섭 연표

옮긴이 후기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

【 추천 논문 】

『The Perils of Peaking Power: Economic Slowdown and Implications for China's Next Decade』(Michael Beckley, IS, Summer 2023)

‘도전국(rising powers, peaking powers)은 언제 그리고 왜 해외로 힘을 확장하는가?’라는 고전적 질문을 던지면서 (자원 고갈, 시장포화, 인구 감소, 부패, 단순 침체 등) 경제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갈 때를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해가 지거나, 기회의 창이 닫히려고 하거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재화를 배분하지 못할 때 침략(aggression)과 확장(expansion)을 사주할 수가 있음을 지난 150년 간 peaking powers 사례를 분석하면서 중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국제체제의 전쟁위기는 패권국에 도전할만한 강대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체제가 불균형한 상태로 될 때 가장 크다는 기존 주류 학설(A.F.K. Organski의 세력전이론, R. Gilpin의 패권안정론 등)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이 된다.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

7. 연구소 동정

【 북핵 아카데미 제2기 모집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우리가 당면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동시에 해결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 「IFES 북핵 아카데미 제2기」 모집 요강 >

- 모집인원: 30명 내외
- 모집대상: △각급기관·단체·기업 임직원 및 연구자, △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에 관심을 가진 분
- 교육일정: 2023년 9월 21일 ~ 12월 7일까지(11주)
(매주 목요일 19:00~21:00, 강의 전 저녁식사 및 음료 제공)
- 모집기간: 2023년 8월 16일(수)부터 9월 19일(화)까지
- 제출서류 및 전형
 - 제출서류: ①수강신청서 ②사진파일(반명함판)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 <https://ifes.kyungnam.ac.kr>
 - 서류접수 이메일: hiyong@kyungnam.ac.kr
- 수강장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 현장 강의·토론 및 온라인(ZOOM) 강의 병행 (비공개)
- 수강료: 1,000,000원
 - 계좌번호: 경남은행 207-0097-9179-02 (예금주: 경남대학교)
- 수강생 특전: △경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연구소 주관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초청, △학술·현안 분석자료 제공(이메일)
- 안내·문의: 02) 3700-0709, 0843 / hiyong@kyungnam.ac.kr

< 「IFES 북핵 아카데미 제2기」 강의 일정 >

강의일정	주제 및 강사
제1강 9월 21일	[기조강연] 한국의 안보전략과 핵 균형 송민순(전 외교부 장관)
제2강 10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현재와 미래: 핵기술 평가를 중심으로 함형필(전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
제3강 10월 12일	핵 민방위 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제4강 10월 19일	나토식 핵공유와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5강 10월 2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 로드맵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제6강 11월 2일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7강 11월 9일	대북 억지 전략의 한계와 발전 방향: 「워싱턴선언」을 중심으로 설인호(국방대 교수)
제8강 11월 16일	【전문가 토론】 한국 핵무장 찬반 토론 <찬성>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반대> 황일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 <사회>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9강 11월 23일	‘오픈하이머’와 핵무기에 의한 평화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10강 11월 30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력 김 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11강 12월 7일	북한의 핵 정치동학 (수료식 포함)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 통일부 차관)

* 강의시간: 19:00~21:00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연구 3차 연구회 개최 】

공동 연구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의 국제정치” 제3차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 발표·토론을 진행하였다.

- 날짜/장소: 2023. 8. 30.(수), 극동문제연구소
- 초청 강사: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주제: ‘한미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 관련 미국 현지 동향
- 참석자
 - 연구소: 이관세 소장, 조진구·정재욱·이형종·이병철·박서화·임을출 교수
 - 외부: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웅현 박사(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8. 예정사항

【 학술지 발간 】

- 『Asian Perspective Vol.47, No.3 (Summer 2023)』 발간

【 일본학자 방문 라운드테이블 (비공개) 】

- 날짜/장소: 2023. 9. 5.(화), 극동문제연구소
- 주제: “일본 연구자들이 보는 북한의 대외관계: 사회주의국가와 비동맹국가,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 참석
 - 연구소: 이관세 소장, 강인덕 초빙석좌교수, 조진구·이상만·이병철·김상범 교수(이상 극동문제연구소), 김용민 교수(건국대), 김숙현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일본: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세이가쿠인대학), 시노다 도모히토 교수(국제대학), 혼나 준(리쓰메이칸대학), 마쓰다 야스히로 교수(도쿄대학),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도쿄대학) 등

【 제1차 삼청포럼 개최 】

- 일시/장소: 2023. 9. 20.(수), 19:00~ ,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
- 주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인가?”
- 발표: 강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하반기 워크숍 】

- 날짜/장소: 2023. 9. 7.~8., 강원도 철원 일대
- 주요 답사지: DMZ 생태평화공원, 철원역사문화 공원 등
- 전문가 특강
 - 강사: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 한반도 접경지역의 정치경제(현황, 문제와 대응방향: 강원도를 중심으로)
- 참석: 펠로, 펠로 수료자, 주임교수 등

9. 참고자료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2023. 8. 18.)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들어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

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계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운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협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 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횡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 안보대화도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자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연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yeE9qWIT> (검색일: 2023년 8월 31일)

구독 회원가입 안내

■ 가입안내

-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연회비 납부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재가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 Fax. 02-3700-0707

E-mail.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